

기획예산처, 국민 추천·심사 방식으로 특별성과포상제도 전면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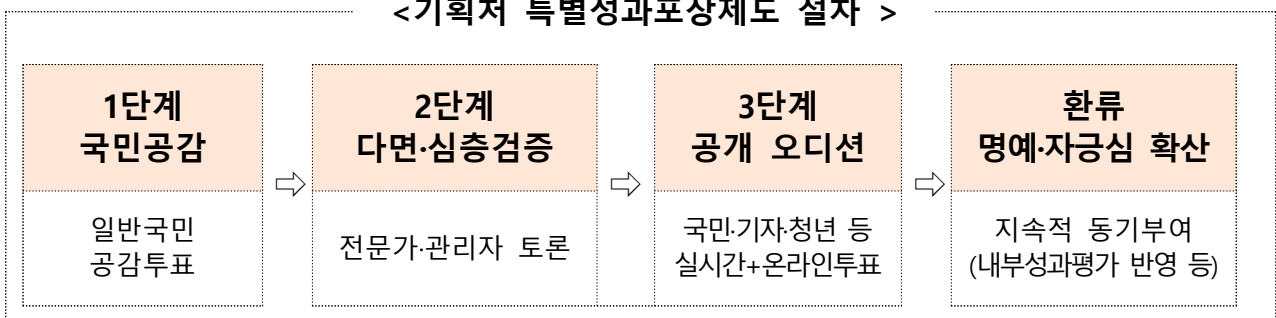
- ▶ 15일부터 후보자 국민 추천 접수 개시
- ▶ 대국민 투표 및 현장 오디션 등 ‘3단계 대국민 심사 모델’ 첫 도입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성과 중심의 역동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4월 제1차 특별성과포상을 실시한 데 이어 6월 15일부터 ‘제2차 특별성과포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 절차를 시작한다. 1차 포상에서는 기획처 내부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마련했으나, 이번부터는 기획처 홈페이지에 대국민 추천 배너를 신설하여 연중 상시 국민 추천을 병행한다.

또한, 기존 내부·전문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대국민 참여형 3단계 심사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탁월한 성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공개 검증을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에 대한 확실한 포상을 시행하고자 한다.

새롭게 도입된 심사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기획처 특별성과포상제도 절차 >



1단계 심사는 접수된 후보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공감투표’로 진행한다. 국민들이 투표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성과 자료를 제공하며, 득표수에 따라 1차 순위를 산출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 후보 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관리자가 심층 토론을 실시하는 ‘심층·다면 검증’을 실시한다. 최종 관문인 3단계는 2단계를 통과한 최종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 예산국민참여단, 출입기자단, 청년자문단 등 현장 심사단의 실시간 투표와 일반 국민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기획처는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수상자에게 성과평가 가점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하고, 내부 메신저에 ‘훈장 배지’ 상시 표출을 통해 명예를 제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역동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혜영 (044-214-1430)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yeoni2266@korea.kr)